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대비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공고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번째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17일(화) 14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고위급 및 기술협의를 앞두고 우리측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붙임 회의 개요)

여한구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 평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바,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성장’에 맞추어 한미 통상협상을 우리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향후 수주 동안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협력 패키지도 적극 발굴하여 협상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한-미 통상협상이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집중적인 협상 진행에 대비하여, 통추위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044-203-5622)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김태우(044-203-5657)

□ 회의 개요

- (일 시) ‘25.6.17(화), 14:00~15:00
- (장 소)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특허청, 기재부, 외교부,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복지부, 고용부, 국방부, 과기부, 환경부, 문체부, 금융위 실국장급

□ 논의 안건

- 대미 관세협의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부)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10 (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4:10~14:55 (45')	토 론	참석자
14:55~15:00 (5')	마무리발언	통상교섭본부장